



미 연준,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 연장

김세중 선임연구원

■ 6월 20일 미 연준은 경기전망이 여전히 어둡다고 지적하고 2012년 6월 말 종료예정이었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을 2012년 12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힘.

- 연준은 연말까지 2,670억 달러 상당의 6년에서 30년 만기 국채를 매입하고 동일한 규모의 3년 이하 만기 국채를 매도할 계획이며, 이를 통해 장기 이자율을 낮추고 경기에 우호적인 금융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힘.
- 연준이 QE3로 불리는 추가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시행하지는 않았으나 버냉키 연준의장이 경기가 어려워진다면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을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고 필요하다면 추가양적완화 정책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가능성은 열어둠,
- 연준의 발표 이후 추가양적완화 정책을 기대하였던 일부 투자자들은 실망감을 나타냈으나 S&P500지수는 소폭 하락에 그쳤으며, 30년 장기국채 금리도 변화하지 않았음.

■ 한편 연준은 2012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하고 실업률은 상향조정하였으며, 초저금리 정책을 최소한 2014년 말까지 유지하기로 함.

- 연준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.4~2.9%에서 1.9~2.4%로 하향조정하고 실업률은 8.0~8.2%에서 7.8~8.0%로 상향조정함.
- 또한 제로에 가까운 초저금리를 2014년 말까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였으며, 최근 유가 하락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둔화되면서 연준의 금융 정책 부담감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풀이됨.
- 2012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의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경기부양에 대한 연준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임.

(Financial Times, 6/20 등)